

실효성 있는 韓·美 방산협력 방향



朴 熊 국방부 제2차관보



한·미간 기술협력은 각 사안별로 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간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간에 이미 체결된 DTIC MoU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업체간 회의에 공동참여하여, 업체간 협력에 심도깊게 논의하는 등 정부와 업체간에 정보교환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서도 돌발적인 위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지역적 평화와 안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주변 4대강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분쟁과 불안정한 주변정세에 편승하여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결코 낙관 할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안보 협력하에서 방위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발전하기까지는 정부와 국민들의 자주국방역량을 갖기 위한 노력과 집념의 결실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엇보다도 우방국인 미국의 기술지원과 공동생산을 통한 협력이 우리의 방위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미간 방산협력에는 많은 현안문제가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 방산제품의 제3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통제, 미국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방산제품에 대한 로열티 지불요구, 한국의 절충 교역방침에 대한 거론과 양국간의 공동 연구개발, 상호 조달협정 및 품질보증협정 등에 관해서는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정신속에서 양국간의 방위산업 협력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한·미 방산업체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방위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국제간 기업

협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볼때 방위산업의 완전한 자급자족은 거의 불가능 하므로 상호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무기는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생산비용이 소요되어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둘째 민수산업의 다국적 기업화로 해외 군수시장을 개척하며, 셋째로 무기거래시 구매국들의 절충교역 조건으로 일정물량의 해외생산이 불가피하고, 넷째로는 군사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 및 변화로 투자위험의 공동부담이 필요하며, 다섯째 우방국간 무기체계 표준화 및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경우도 방산협력을 동반관계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한국은 우수한 기능공과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10여년간의 기본병기 생산경험을 갖고 있어, 미국의 설계능력과 최첨단 기술지원이 잘 조화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종합된다면 최상의 Business Partner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금년 한·미안보회의에서 체결 예정인 전시지원협정(WHNS)의 효과적인 시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은 NATO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차

한·미 방산업체간에도 상대적으로 강점과 취약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을 찾는다면 업체간에 이익을 즐뿐만 아니라 양 국가에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미 업체간 기술 협력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호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탐색하고, 이익분야를 찾아내며 상호 요구사항과 조건 등을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정보 교환은 최초부터 장비운용이 종료되는 장비 도태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에서 활용될수 있는 자유우방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제5차 한·미방산회의를 통하여 양국의 업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활용하여 최대한 협력 분위기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1963년에 자료 교환협정, 1975년에 과학기술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한·미 안보협회의의 산하인 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시행되어 왔으며, 한·미 양국은 제20차 SCM에서 한·미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술격차가 심해 구체화된 발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결코 미국의 해로운 존재나 경쟁상대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협력의 우방 동반자일 뿐입니다.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1963년에 자료 교환 협정, 1975년에 과학기술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이들을 근거로 한·미 안보협의회의 산하인 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시행되어 왔으며, 한·미 양국은 제20차 SCM에서 한·미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술격차가 심해 구체화된 발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금년 11월 6일 워싱턴에서 한·미 특허비밀 보호협정(PSA : Patent Secrecy Agreement)에 가서명하여 상호 기술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두 나라가 서로 군사적 발명, 기술의 비밀을 교환할 만큼 국방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간 기업 협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볼때 방위산업의 완전한 자급자족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상호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무기는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생산비용이 소요되어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둘째 민수산업의 다국적 기업화로 해외 군수시장을 개척하며, 셋째로 무기거래시 구매국들의 절충교역 조건으로 일정물량의 해외생산이 불가피하고, 넷째로는 군사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 및 변화로 투자위험의 공동부담이 필요하며, 다섯째 우방국간 무기체계 표준화 및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지난 1988년에 효력이 만료된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새로 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간의 방산기술 협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의 방산협력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의 계속적인 독점을 위한 기술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 개발에 따르는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국간에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및 생산의 분업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방산업체간에도 상대적으로 강점과 취약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을 찾는다면 업체간에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양 국가에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미 업체간 기술 협력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호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탐색하고, 이익분야를 찾아내며 상호 요구사항과 조건 등을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정보 교환은 최초부터 장비운용이 종료되는 장비 도태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 연구개발 분야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능력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오던 방산분야의 연구개발은 앞으로는 산·학·연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업체의 연구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업체주도식으로 전환토록 추진함으로써 한·미 업체간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더 발전되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서 미국 업체는 System 개발과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하고, 한국업체는 부품 및 구성품 개발에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개발은 비용절감은 물론 제3국에 대한 수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간 기술도입생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고도 첨단병기는 주로 해외구매로 추진하여 왔으나, 기술도입생산 분야가 한·미 업체간에 주종을 이루는 협력형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형태는 주로 체계의 세부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과 민수 호환성장비 및 관련부품의 개발에 대한 협력이 증가하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충교역(Off-Set)에 의하여 업체간 협력이 증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측에서는 Off-set 조건을 가급적 피하려 하고 있지만, 이 Off-Set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한·미간 Off-Set 조건은 미국과 유럽 및 NATO 국가와 시행하고 있는 Off-Set 조건과 비교하면 미국측에 결코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Off-Set 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비율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므로 원만한 Off-Set 조건은 업체간 상호 협력사업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 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간 기술협력은 각 사안별로 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간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간에 기 체결된 DTIC MoU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회의와 같은 업체간 회의에 정부도 공동 참여하여, 업체간 협력에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정부와 업체간에 정보교환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 한국이 미국과 상호 조달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미국이 NATO 국가 및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조달협정과 같이 전 품목에 대해서 BAA(Buy American Act)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지정된 방산물자에 대해 양국 정부가 동의하여 BAA를 면제하고 양국 업체가 양국 정부를 상대하는 절차와 창구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간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종전보다 교역량이 증가되고 품질보증에 대한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중복된 품질보증 활동을 피하고 공인된 품질을 제공할수 있으며 품질보증에 대한 창구 및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외에도 업체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노력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도출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

한·미 양국은 1988년 防産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술격차가 심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호조달협정 및 품질보증협정등의 체결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가서명된 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은 상호기술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또하나의 신뢰를 구축한 것입니다